

---

## 제 3 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계성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 3 자 효과 지각과  
공개적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 승 찬\*

### 1. 들어가는 글

정치사안에 관한 여론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동안 발표된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결과에서는 정확한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면서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sup>1)</sup> 매스미디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데이비슨(Davison)의 제 3 자 효과 가설(*the third-person effect hypothesis*)<sup>2)</sup>과 노엘레-노이만(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 이론(*the theory of the spiral of silence*)<sup>3)</sup>은 모두 정치사안과 관

---

\* 한국언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Mutz, D. C., "The Political Effects of Perceptions of Mass Opinion," *Research in Micro Politics*, 4, 1994: pp. 143~167.

2) Davison, W. P.,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983: pp. 1~15.

런된 실제의 여론 상황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태도 등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각(*social percep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지각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두 이론적 접근의 접목을 시도해 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데이비슨의 제3자 효과 가설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편향된 지각을 개인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즉 매스미디어의 메시지가 개인 자신(I) 또는 함께 있는 사람(*you*)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제3자인 타인(*others*)에게는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제3자 효과 지각(*the third-person perception*)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제3자 효과 가설을 경험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매스미디어 메시지가 개인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의 차이를 제3자 효과 지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제3자인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지각적 차이가 유의미하게 발견됨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제3자 효과 가설이 갖는 중요성은 개인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매스미디어의 내용물들이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지각을 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결과적인 측면에 있다고 하겠다.<sup>5)</sup> 데이비슨 자신도 1983년 논문에서 “... 커뮤니케이션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리라는 기대는 나아가 개인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sup>6)</sup>라고 밝

3) Noelle-Neumann, E., *The Spiral of Silence: Public Opinion — Our Social Skin* (Chicago, IL: Univ. of Chicago Press, 1984).

4) Perloff, R. M., “Third-person Effect Research 1983~1992: A Review and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5, 1993: pp. 167~184.

5) Mutz, D. C.,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Media Influence: Third Person Effects and Public Expression of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 1989: pp. 3~23.

했듯이, 제3자 효과 가설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적 요소 (*perceptual component*) 뿐만 아니라 태도 및 행위와 관련된 요소 (*behavioral component*) 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한편 노엘레-노이만이 주창한 침묵의 나선 이론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분위기의 지각이 사람들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의 견해가 여론 상황에서 의견분위기 (*climate of opinion*) 로 나타나는 다수 견해와 일치한다고 (*congruent*) 지각하는 사람들은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반해 불일치한다고 (*incongruent*) 지각하는 사람들은 고립의 두려움 (*fear of isolation*) 때문에 침묵하게 된다는 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이다.

이렇듯 제3자 효과는 개인이 본인 스스로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갖는 미디어 영향력에 대한 지각을, 침묵의 나선 이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지각을 각각 다루면서 이러한 지각이 정치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연구전통의 접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목의 가능성은 많은 부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의 제안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고, 연계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을 제시하거나 실제적으로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까지 두 편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다.<sup>7)</sup>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다양한 정치적인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과 그 지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론을 중시한다고 표방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언

6) Davison, W. P., *op. cit.*, p. 3.

7) Mutz, D. C., *op. cit.* (1989), pp. 3~23; Willnat, L., "Mass Media and Political Outspokenness in Hong Kong: Linking the Third-person Effect and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996: pp. 187~212.

론사의 정밀 저널리즘 도입의 일환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의 여론조사 보도는 이제 꽤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8)</sup> 여론조사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여론과정에서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여론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한 여론조사 보도가 여론형성 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공론장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제약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축적된 경험적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여론분위기를 전달하는 여론조사 보도는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주장하듯 자칫 소수의 의견을 침묵시킬 수도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론조사 보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소수의 견해를 더욱 침묵시키고 다수의 견해를 더욱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면 여론조사 보도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매스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개인의 사회적 지각을 공통으로 다루는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미디어의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3자 효과 지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공개적인 의견표명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996년 4월 행해진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배경으로 선거기간 동안 부각된 정치적 쟁점 가운데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하 김영삼 대통령으로 통일하여 지칭함)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여부를 관심사안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8) 한국언론연구원, "여론조사보도"(1993), p. 215.

## 2. 선행연구 정리

### 1) 제3자 효과 연구의 전개

1983년 데이비슨이 *Public Opinion Quarterly*에 매스미디어 제3자 효과를 소개한 이래 지난 10여 년 간 진행된 대부분의 제3자 효과 연구는 여러 장르의 미디어 메시지,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된 미니시리즈 <Amerika><sup>9)</sup> 인종분리 문제에 대한 보도,<sup>10)</sup> 상품광고,<sup>11)</sup> 정치광고,<sup>12)</sup> 명예훼손에 대한 기사,<sup>13)</sup> 중동의 긴장 상태에 관한 방송보도,<sup>14)</sup> 여러 형태의 선거 정치관련 보도<sup>15)</sup> 등의 사례를 통해 개인이 제3자 타인에 대하여 갖는 과장된 미디어 영향력의 지각을 발견해 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1993년까지 발표된 14편의 제3자 효과 연구 가운데 13편이 사람들이 개인 자신보다 타인에게 매스미디어의 메시지가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지각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

9) Lasorsa, D. L., "Real and Perceived Effects of 'Amerika'," *Journalism Quarterly*, 66, 1989: pp. 373~378.

10) Mutz, D. C., *op. cit.* (1989), pp. 3~23.

11) Gunther, A. C. and E. Thorson, "Perceived Persuasive Effects of Product Commercial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Third-person Effects in New Domains," *Communication Research*, 19, 1992: pp. 574~596; Gunther, A. C. and P. Mundy, "Biased Optimism and the Third-person Effect," *Journalism Quarterly*, 70, 1993: pp. 58~67.

12) Rusinski, D. and C. T. Salmon, "The 'Other' as the Vulnerable Voter: A Study of the Third-person Effect in the 1988 U.S. Presidential Campaig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 1990: pp. 345~368.

13) Cohen, J., D. C. Mutz, V. Price, and A. Gunther.,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An Experiment on Third-person Effects," *Public Opinion Quarterly*, 52, 1988: pp. 161~173.

14) Perloff, R. M. "Ego-involvement and the Third Person Effect of Televised News Coverage," *Communication Research*, 16, 1989: pp. 236~262.

15) Rusinski, D. and C. T. Salmon, *op. cit.*, pp. 345~368.

다. 16) 1993년 이후에도 TV 폭력물, 17) 미디어 여론조사 보도 일반, 18) 랩 음악 가사, 19) O. J. 심슨(Simpson) 재판보도<sup>20)</sup> 등에 대한 연구에서 미디어 수용자의 제 3 자 효과 지각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한국사회를 배경으로 제 3 자 효과의 지각적 측면을 살펴본 연구들도 이제는 꽤 축적된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 박정순, 원우현, 김정탁<sup>21)</sup>이 대북관계 사안을 중심으로 제 3 자 효과 연구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중의 정치폭력을 다룬 뉴스 보도, 22) 광주 민주화와 관련된 사안, 23) 시국불안에 대한 보도<sup>24)</sup> 등의 영향력에 대한

- 
- 16) Perloff, R. M., "Third-person Effect Research 1983~1992 : A Review and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5, 1993: pp. 167~184.
- 17) Rojas, H., D. V. Shah, and R. J. Faber, "For the Good of Others :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 (2), 1995: pp. 163~185.
- 18) Wang, H., "The Third-person Effect in Taiwa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5).
- 19) McLeod, D. M., W. P. Eveland, and A. I. Nathanson,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 1997: pp. 153~174.
- 20) Salwen, M. B. and P. D. Driscoll, "Consequences of Third-person Perception in Support of Press Restrictions in the O. J. Simpson Trial," *Journal of Communication*, 47 (2), 1997: pp. 60~78; P. D. Driscoll and M. B. Salwen, "Self-perceived Knowledge of the O. J. Simpson Trial : Third-person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Guil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 (3), 1997: pp. 541~556.
- 21) 박정순 · 원우현 · 김정탁, "다원적 무지 현상과 제 3 자 효과에 대한 논의 : 남북 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여론인식의 사례 연구," 《신문학보》 22, 1987: pp. 5~28.
- 22) 박정순, "커뮤니케이션과 지역감정," 《신문학보》 25, 1990: pp. 35~74.
- 23) Kim, Y. and J. Ahn, "Perceived Media Influence on Self and Others on a Controversial Issu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 1991).
- 24) 김재범 · 이계현, "여론과 미디어 : 다원적 무지와 제 3 자 가설에 대한 연구,"

연구에서 지각적인 편향성은 많은 부분 확인되었다. 펠로프(Perloff)<sup>25)</sup>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들은 제3자 효과 지각이 특정 문화권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일련의 연구자들은 데이비슨의 초기 연구에 덧붙여 제3자 효과 지각의 크기가 비교의 대상인 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에 관심을 가졌다. 펠로프는 제3자인 타인이 개인이 느끼기에 자신과 비슷하거나(*just like me*), 개인과 가까운 집단(*my closest group*)일 경우 타인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을 자신과 비슷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6)</sup> 특히 코헨(Cohen)과 동료 연구자들은 제3자인 타인이 누구인가를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라는 변인으로 분류하고, 제3자 효과의 정도는 타인이 개인 자신과 가장 가까운 집단(*my closest group*)에서 개인이 속한 가장 큰 집단(*my largest group*)으로 멀어질수록(예를 들어 “같은 학교 학생”, “같은 주 주민”, “전국민”으로 멀어 질수록) 더욱 커져 간다고 밝히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사회적 거리에 따른 지각적 편향의 정도 차이는 미국에서의 후속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을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되어 왔다.<sup>28)</sup>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내용을 대상으로 제3자 효과 지각이 검토되는 것 자체도 학문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왜 이러한 지각을 하는가를 밝혀 보려는 시도도 중요하며, 그 동안 낙관적인 편견(*optimistic bias*), 자아에 대한 인식(*ego-involvement*) 등이 제3

《한국언론학보》 31, 1994: pp. 63~86.

25) Perloff, R. M., *op. cit.* (1993), pp. 167~184.

26) Perloff, R. M., *op. cit.* (1993), pp. 175~176.

27) Cohen, J., *op. cit.*

28) McLeod, D. M., W. P. Eveland, and A. I. Nathanson,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 1997: pp. 153~174; White, H. A., “Considering Interacting Factors in the Third-person Effect: Argument Strength and Social Distan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3), 1997: pp. 557~564; 박정순, 앞의 글.

자 효과 지각의 출현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sup>29)</sup> 하지만 아직까지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식하는 제 3 자 효과 지각 자체를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다른 현상들과 연결시키는 조건(*condition*) 또는 과정(*process*)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다.<sup>30)</sup> 즉 “제 3 자 효과의 지각을 발견해서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so what?*)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제 3 자 효과 가설의 두번째 구성요소인 지각의 편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태도와 행동에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과 함께 머츠(Mutz), 펄로프 등의 연구자들은<sup>31)</sup> 제 3 자 효과 지각 현상을 특히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영역의 다른 개념들과 관련지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 3 자 효과 지각이 매스미디어에 담겨진 부정적인 메시지에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 3 자 효과 가설의 두번째 요소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연구는 주로 규제(*control and regulation*)나 검열(*censorship*)에 관한 분야라 하겠다. 이러한 연구를 처음 시도한 루신스키(Rucinski)와 새먼(Salmon)은 제 3 자 효과 지각과 선거운동 기간의 미디어 내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태도의 상관관계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제 3 자 효과 지각과 미디어 내용에 대한 외부적 통제에 대한 지지와의 관련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sup>32)</sup> 그렇지만 최근 매스미디어 내용의 검열과 관련된 연구들은 제 3 자 효과

29) Brosius, H. and D. Engel, “The Cause of Third-person Effects : Unrealistic Optimism, Impersonal Impact, or Generaliz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Media Infl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996: pp. 142~162; Gunther, A. C. and P. Mundy, “Biased Optimism and the Third-person Effect,” *Journalism Quarterly*, 70, 1993: pp. 58~67; Perloff, R. M., *op. cit.* (1989), pp. 236~262.

30) Mutz, D. C., *op. cit.* (1994), pp. 143~167.

31) Mutz, D. C., *op. cit.* (1989), pp. 3~23; Perloff, R. M., *op. cit.* (1993), pp. 167~184.

32) Rusinski, D. and C. T. Salmon, *op. cit.*, pp. 345~368.



지각이 검열에 호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건서(Gunther)는 미디어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수록 검열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검열 관련 태도에 잠재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변인(예를 들면, 언론자유에 대한 태도, 포르노에 노출 여부)을 통제적으로 통제된 후에도 발견되었다.<sup>33)</sup> 제3자 효과 지각과 검열에 호의적인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폭력과 TV, 폭력과 랩 음악 가사 등을 다룬 연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sup>34)</sup>

한국을 배경으로 한 리와 양(Lee & Yang)의 성적 노출이 많은 TV 드라마에 대한 연구, 송경희와 이수영의 TV 폭력물에 관한 연구 등에서도 제3자 효과 지각과 미디어 내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태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다.<sup>35)</sup> 특별히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3자 효과 지각을 여론조사 보도 규제의 측면과 연결시켜 본 연구로는 두 편의 논문이 있다. 왕(Wang)은 대만을 배경으로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해 유권자들이 갖는 제3자 효과 지각이 여론조사 규제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up>36)</sup> 최근 양승묵은 한국 국회의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3자 효과 지각이 공식선거 기간중 여론조사 결과의 언론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선거법 제108조에 대한 지지의 태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7)</sup>

33) Gunther, A. C., "Overrating the X-rating: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1), 1995: pp. 27~38.

34) Rojas, H., D. V. Shah, and R. J. Faber, *op. cit.*, pp. 163~141; McLeod, D. M., W. P. Eveland, and A. I. Nathanson, *op. cit.*, pp. 154~174.

35) Lee, C. and S. Yang,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Sexually Explicit Visual Content: A Korean Case," *Sungkok Journalism Review*, 8, 1996: pp. 21~39; 송경희·이수영, "TV폭력에 대한 프로듀서와 학부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0, 1998: pp. 229~256.

36) Wang, H., *op. cit.*

37) 양승묵, "여론조사와 제3자 효과: 여론조사의 영향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각

## 2) 제 3 자 효과 지각과 침묵의 나선 이론

제 3 자 효과 가설보다 앞서 1973년 매스미디어의 강효과 개념으로의 회귀<sup>38)</sup>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영어권에 소개된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은 여론의 분포 또는 추이에 대한 지각이 정치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 행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앞서서도 요약했듯이 여론환경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의견분위기(*climate of opinion*)가 개인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우세하다고 지각할 경우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공개적으로 하려 하지만, 반면 이러한 의견분위기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방향으로 우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fear of isolation*)으로 인해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핵심이다. 비록 노엘레-노이만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매스미디어의 강효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의견분위기에 대한 사회적 지각과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살펴본 침묵의 나선 이론 연구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정 사안에 대해 개인이 갖는 태도와 지각한 여론분위기와 일치도 여부가 정치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사표명에 적어도 그 크기는 작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sup>39)</sup>

적 편향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 18, 1997: pp. 6~28.

38) Noelle-Neumann, E., "Return to the Concept of Powerful Mass Media," in H. Eguchi and K. Sata (eds.), *Studies in Broadcasting*, 9 (Tokyo, Japan: NHK, 1973), pp. 76~112.

39) Glynn, C. J., Hayes, A. F., and J. Shanahan, "Willingness to Speak Out and the Spiral of Silence: A Meta-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naheim, CA., August 1996); Yang, S.,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Speak Out in the Public Sphere: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7).

이러한 침묵의 나선 이론의 주장을 제 3자 효과 연구의 범주에서 최초로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로는 남아프리카 인종분리 문제와 관련된 스탠퍼드대학 재정문제를 주 사안으로 한 머츠(Mutz)의 연구가 있다.<sup>40)</sup> 머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본인의 견해에 반하는 분위기를 그리고 있다고 느낀다는 ‘미디어 적대 현상’(hostile media phenomenon)에 근거하여,<sup>41)</sup> 자신보다 타인이 매스미디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개인이 갖는 태도와 불일치하는 의견분위기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머츠는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제 3자 효과 지각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머츠의 연구결과는 제 3자 효과 지각이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공개적으로 신분을 밝히며 청원서에 서명하는 의견표명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윌낫(Willnat)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머츠의 연구를 그대로 홍콩에 적용하여 홍콩의 정치개혁과 관련한 사안을 가지고 제 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sup>42)</sup> 비록 이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제 3자 효과 지각을 하는 것이 미래 여론환경에서 자신의 견해와 불일치하는 의견분위기를 갖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디어 적대 현상의 가정이 제한적으로나마 지지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제 3자 효과 지각과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보여주지 못했다.

40) Mutz, D. C., *op. cit.* (1989), pp. 3~13.

41) Vallone, R. P., L. Ross, and M. R. Lepper,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Biased Perceptions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985: pp. 577~588.

42) Willnat, L., *op. cit.*, pp. 187~212.

### 3. 이 연구의 이론체계화 과정

#### 1) 연구문제와 연구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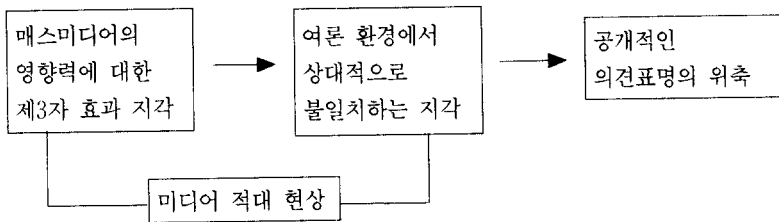
선행연구의 정리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적 편향성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아본 연구는 아직까지 한국을 배경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우선 이 연구는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국의 일반 유권자가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3자 효과 지각의 정도가 비교 대상의 타인이 “지역주민”에서 “국민 전체”로 사회적 거리가 달라짐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알아본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언론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이 침묵의 나선 이론의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과 어떠한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 기존의 머츠와 윌낫의 연구는 “미디어 적대 현상”에 근거하여 사안에 대한 찬/반 양측 모두 일반적인 매스미디어 내용에 대해 제3자 효과를 지각할 경우 개인의 의견과 불일치한 여론분위기를 느끼게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머츠와 윌낫은 노엘레-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을 따라 이러한 불일치한 여론분위기 지각 때문에 의견표명이 위축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정리된 것처럼 여론조사 보도의 제3자 효과 지각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이 사안에 갖는 기본적인 찬/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들을 나누어 본다. 특히 언론 여론조사 결과는 다수의 편을 알려줄 뿐 아니라 여론 방향과 관련된 함의(*directional implication*)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침묵의 나선 이론과 연계시켜 보려 한 기존의 두 편의 제3자 효과 연구가 타인에게 미치는 매스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의 방향을 일률적으로 개인과 반대되는 측면으로 상정한 것과는 달리, 언론 여론조사 보도의 경우에는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견해쪽으로 영향을 받는 측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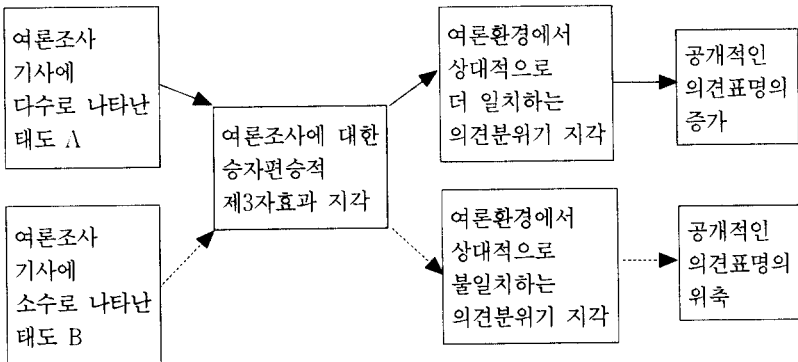
고려한다. 또한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개인이 매스미디어나 다른 채널들을 통해 나름대로 지각하는 여론의 분위기를 주로 측정한 것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이에 노출된 사람들의 여론분위기에 대한 지각을 일률적으로 통일한 후 그 다음 제3자 효과의 지각에서 파생되는 결과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모델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의 윗부분에서 제시된 흐름은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다수편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다. 만일 다수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타인들이 자신과 같은 의견방향으로 상대적으로 더

<그림 1> 미디어 적대 현상을 가정한 머츠와 윌넛의 모델



<그림 2>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승자편승 측면의 제3자 효과 지각 모델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들은 제 3 자 효과 지각으로 인해 여론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여론분위기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일치된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침묵의 나선 이론의 주장에 근거하여, 더욱 일치된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게 된 사람들이(제 3 자 효과 지각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의견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반면 <그림 2>의 아랫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수편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소수편의 의견을 가진 사람이 여론조사 보도로 인해 타인들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갖는 다수의 편을 향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제 3 자 효과 지각으로 인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불일치한 여론분위기를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는 추측한다. 이와 같이 더욱 불일치한 여론분위기를 지각한 사람들(제 3 자 효과 지각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할 것이라고 역시 침묵의 나선 이론에 근거하여 마지막 단계를 추측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가 타인들이 다수의 편으로 따라가도록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승자편승 측면의 제 3 자 효과 지각이 정치사안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에 따라 공개적인 의견표명 행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안한다.

특히 제 3 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계성을 보는 데서 상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인 여론조사 보도가 다수의 방향으로 미치는 승자편승(*bandwagon*) 측면의 영향력에 대한 제 3 자 효과 지각은, 여론조사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방향으로 보도 자체가 자신과 타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보는 지각적 편향을 의미한다. 한편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willingness to speak out publicly*)은 한 개인이 가상의 공론장에서 대부분 모르는 타인들 앞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언어로써 표현하겠다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대한 의도라고 정의한다.

## 2) 연구 가설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의 제3자 효과 지각의 정도와 앞에서 제시한 이론진술문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가설 2>는 그 동안 지각적 요소를 살펴본 제3자 효과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한 수정 없이 설정하였다. 한편 <가설 3>과 <가설 4>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이 연구의 이론진술문의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유권자가 사안에 대해 갖는 지지와 반대의 태도를 구분하고 독립변인인 승자편승 측면의 제3자 효과 지각과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각각 추측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후에 설명하겠지만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가운데 신문기사에만 국한하여 검증을 하려 한 관계로 가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문보도에 대한 언급으로 국한하였다.

가설 1: 사람들은 신문 여론조사 보도기사가 자신들보다 타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제3자 효과)이라고 지각할 것이다.

가설 2: 신문 여론조사 보도기사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의 지각의 정도는 자신과의 비교대상인 타인이 “같은 지역에 사는 타인”일 경우보다 “한국 국민 전체”일 경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신문 여론조사 보도기사에서 자신의 태도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편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제3자 효과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3자 효과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가설 4: 신문 여론조사 보도기사에서 자신의 태도가 소수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수의 편

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제 3 자 효과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 3 자 효과 지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꺼릴 것이다.

#### 4. 연구 방법

##### 1) 개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인 추측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지난 1996년 4월 11일에 열린 제 15 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중 부산과 대구에서 조사된 설문자료를 통해 행해졌다. 특히 이 연구는 20세 이상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면접조사에서 무작위로 일부에게 가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제 3 자 효과 지각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부산과 대구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행정단위 등을 인구 비례에 따라 첫번째 표집단위로 하는 이단계 집락표집 (*two-stage cluster sampling proportional to cluster size*)으로 각각 2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전체 500명의 응답자 중 절반 가량인 263명이 신문 여론조사 기사의 제 3 자 효과 지각에 대한 분석을 위해 무작위로 가상의 신문 여론조사 기사에 노출되었고, 237명은 통제집단으로 이용되었다. 무작위로 응답자를 나누기 위해 응답자로 하여금 동전을 던지게 하여 앞면이 나온 경우에 면접원이 신문 여론조사 기사를 보여주고 제 3 자 효과 지각의 측정을 위한 설문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sup>43)</sup>

43) 무작위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절반 가량만 가상의 여론조사를 보여주고 제 3 자 효과 지각을 알아본 것은 이 연구가 다른 여러 목적을 지닌 프로젝트 안에서 수행된 이유로 표본의 수에 제약을 준 측면에서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여주지 않고 제 3 자 효과 지각을 묻지 않은 통제집단을 둔 것에는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영향을 줄 여러 요인의 영향력을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random*) 만들고 난 후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제 3 자 효과 지각의 영향력을 살펴볼려 한 의도가 있었다. 비록 이 연구의 초점이 여론조사에 노출된 사람들 가운데 제 3 자 효과 지각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비교이기는 하



노엘레-노이만(1984)은 침묵의 나선 이론을 적용시켜 볼 사안은 사회에서 실제로 논쟁중이어야 하며, 사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좋고 나쁘다고(*good or bad*) 생각될 수 있는 도덕적인 차원이 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 여부를 연구의 사안으로 삼았다.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지지하는 측면은 선거가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띤 관계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쟁점이었으며, 또한 대통령을 국부로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정서상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문민정부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사안을 선정하게 되었다.

가상의 신문 여론조사 기사는 실제로 언론지상에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임의로 구성되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쪽이 64%, 반대하는 쪽이 31%로 조사된 결과를 헤드라인으로 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을 명시하였고, 기사 안에 표본의 크기, 조사대상, 표본오차, 조사의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신문기사의 편집방식은 중앙종합지 J신문의 가로짜기를 원용하였다.

## 2) 주요 변인의 측정

제3자 효과 지각 측정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먼저 사안에 대한 개인의 지지/반대 여부를 물었다. 그리고 나서 제3자 효과 지각 측정집단의 경우 임의로 구성된 신문 여론조사 기사를 보여 주고, 신문 여

---

지만, 여론조사를 보여주고 제3자 효과 지각과 관련한 질문을 한 것을 실험 처치로 볼 때 여론조사 기사만을 보여준 집단, 제3자 효과 지각만 물어본 집단(이 연구의 목적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여론조사 기사와 함께 제3자 효과 지각의 문항을 물어본 집단, 통제집단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단 설문조사에 실험을 덧붙이는 작업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 여론조사 기사를 보여주고 제3자 효과 지각을 알아본 집단과 통제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후에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집단과 추가적으로 비교하여 의견표명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론조사 보도가 다수의 편으로 지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 본인 자신, 다른 사람들(이 때 다른 사람들은 지역적, 전국적 차원)을 구분해서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척도로는 매우 영향을 많이 미침을 4로, 조금은 영향을 미침을 3으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2,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1로 본 4점 척도를 이용하였다.<sup>44)</sup>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제 3 자 효과 지각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응답 비교를 통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보다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한 사람들을 제 3 자 효과 지각집단으로 간주하였다.<sup>45)</sup>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즉 매스미디어와 인터뷰를 하는 상황과 가상적인 공개회의의 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역적인 차원과 전국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말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1,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4로 본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다.<sup>46)</sup>

44) 실제 이용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여론조사 보도가 귀하 자신(지역주민, 우리나라 전체국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4점 척도의 사용은 제 3 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을 처음 연결시켜 본 머츠(1989)의 연구와 비교의 목적도 있었으므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따른 것이다.

45) 이 연구에서는 지각차의 정도의 크기가 의견표명에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보다 제 3 자 효과 지각을 하는지의 여부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머츠의 연구에서와 같이 제 3 자 효과 지각집단을 구분해 내는 데 우선 주 목적이 있었다. 또한 제한된 표본 안에서 제 3 자 효과 지각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각한 집단/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분으로 분류를 제한하였다.

46)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만일 귀하가 반상회와 비슷한 부산(대구) 지역 전체 주민회의에 참석했을 때,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귀하는 자신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2) 만일 귀하가 정치적 견해를 달리는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을 때, 이 모임에서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귀하는 자신의

또한 임의로 구성된 신문 여론조사 보도기사를 응답자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자료로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자료의 신뢰여부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5. 분석 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 사안에 대해 전체 표본 500명의 49.0%가 지지, 25.2%가 반대하여 여론조사 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연구조사에서도 지지하는 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효과 지각 측정 집단의 경우 역시 지지하는 쪽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지 54.4%, 반대 22.1%). 제3자 효과 지각집단의 경우 조사에 이용된 신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는 16.7%가 신빙성에 의문을 제시하였고 46.8%가 믿을 만한 자료라고 답하였다.

신문 여론조사 보도에서의 제3자 효과의 지각적 편향과 관련된 <가설 1>과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직접점수차에 의한 t검증(paired t-test)을 수행하였다.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신문의 여론조사 보도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 < .001$ ). 또한 제3자 효과의 지각의 정도는 타인으로 설정한 집단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타인일 경우보다 전국적 차원의 일반적인 한국 사람일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표 2>). 따라서 신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의 지각적 요소에 대한 가설들은 데이터 분석에서 지지되었다.

---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3) 만일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KBS 뉴스의 취재기자가 길거리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기자가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다면 귀하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4) 이번에는 만일 부산지역에 방송되는 부산민방 PSB (대구 TBC)의 취재기자가 길거리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기자가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다면 귀하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표 1〉 신문여론조사의 영향력 지각 : 본인 대 타인

신문 여론조사 기사	본인 자신	비교 대상			
		타인: 지역주민	t-value	타인: 국민전체	t-value
김영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	2.46(.71)	2.64(.74)	4.43***	2.76(.69)	7.04***

괄호 안은 표준편차. N = 263, \*\*\* p < .001

〈표 2〉 타인의 성격에 따른 지각적 편향의 차이 비교 : 지역주민 대 국민전체

신문 여론조사 기사	지역주민 비교시 차이	국민전체 비교시 차이	t-value
김영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	.18	.30	3.13**

N = 263, \*\* p < .01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에 대해 지지, 반대의 견해를 표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집단과 제3자 효과 지각을 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를 한 t검증을 통하여 실시했다. 침묵의 나선 이론 자체에도 사안에 대한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한 논의가 없고 또한 이 연구에서도 지지, 반대의 태도 표명을 한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이론적인 추측을 하였기 때문에 중립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지역적, 전국적으로 나누어서 행해졌는데 즉 지역의 타인들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은 지역적 차원에서의 공개적인 의견표명 여부와, 일반적인 국민 전체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은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개적인 의견표명 여부와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이렇게 지역적, 전국적 차원으로 분류한 것은 상대적으로 개인 자신보다 영향력을 더 받으리라는 대상으로서의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변화되는 의견분위기와 태도표명의 상황을 맞추어(match-

ing)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연구자의 판단 때문이었다. 후에 무작위로 선정되어 여론조사를 보여주지 않고, 제3자 효과에 대한 설문을 묻지 않은 나머지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삼아 공개적인 의견표명의 정도를 제3자 효과를 지각한 집단과 비교하였다.

신문 여론조사 보도에서 자신의 태도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3자 효과 지각을 하는 사람들은 제3자 효과 지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설 3>을 먼저 살펴보았다. <표 3>에 나타나듯 전국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지지되어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사람(여론조사에서

〈표 3〉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승자편승 차원의  
제3자 효과 지각과 공개적인 의견표명

태도	타인의 성격	제3자 효과 지각 여부	공개적인 의견표명			
			매스미디어 인터뷰		공개회의 석상	
			평균값	t-value	평균값	t-value
지지자 (245)	전국적 차원	제3자 효과 지각집단(47)	2.83		2.63	
		아닌 집단(96)	2.52	-2.05*	2.54	-.69
		통제집단(102)	2.54	-1.79#	2.55	-.59
	지역적 차원	제3자 효과 지각집단(33)	2.79		2.52	
		아닌 집단(110)	2.65	-.87	2.56	.31
		통제집단(102)	2.59	-1.10	2.53	.09
반대자 (126)	전국적 차원	제3자 효과 지각집단(19)	2.79		2.68	
		아닌 집단(39)	2.72	-.27	2.67	-.07
		통제집단(68)	2.60	-.98	2.74	.26
	지역적 차원	제3자 효과 지각집단(10)	3.30		3.20	
		아닌 집단(48)	2.65	-2.10*	2.65	-1.97*
		통제집단(68)	2.62	-2.84**	2.66	-2.02*

\*\*  $p < .01$ , \*  $p \leq .05$ , #  $p < .10$

주: 1) 공개적인 의견표명은 전국적, 지역적 차원의 해당 차원에 상응하는 매스 미디어 인터뷰와 공개회의 석상에 국한한 검증임.

2) t검정은 제3자 효과 지각집단을 기준으로 기타 두 집단과의 차이를 본 검증 결과임.

다수로 나타난 집단) 가운데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제 3자 효과 지각자들은, 제 3자 효과 지각이 없던 사람들보다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자신을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 = 2.05, p < .05$ ). 또한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 제 3자 효과 지각집단은 여론조사 기사를 보여주지 않고 제 3자 효과 설문을 묻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제한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더 높은 의견표명 의사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t = 1.79, p < .10$ ).

다음으로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서 소수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 3자 효과 지각을 하는 이들은 제 3자 효과 지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꺼릴 것이라는 <가설 4>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데이터는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도출했으며 특히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차원의 제 3자 효과 지각에서 발견되었다. 즉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갖는 소수편에 속해 있고, 지역주민이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하는(즉 자신의 입장과 반대방향) 방향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제 3자 효과 지각이 이 사안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패턴을 보였다(매스미디어 인터뷰  $t = 2.10, p < .05$ ; 공개회의 석상  $t = 1.97, p \leq .05$ ). 또한 제 3자 효과 지각집단은 통제집단보다도 유의미하게 높은 의견표명 의사를 보였다(매스미디어 인터뷰  $t = 2.84, p < .01$ ; 공개회의 석상;  $t = 2.02, p < .05$ ).

추가적으로 이 연구의 실험처치, 즉 여론조사를 보여주고 제 3자 효과 지각과 관련한 설문문항을 물은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제집단과 제 3자 효과지각을 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해 보았다. <표 3>에 집단간의 비교를 한 t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김영삼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자, 반대자 모두에서 이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6. 논의와 결론

이 연구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배경으로 유권자들이 자주 접하는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을 고찰함에 있어 우리에게 낯익은 매스미디어의 이론적 접근인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을 연계시키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신문의 여론조사 보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다수의 방향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질문함으로써, 자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승자편승적인(*bandwagon*) 효과라는 측면에서 기획되어, 기존 행해진 제3자 효과 연구와는 차이를 갖는 탐험적(*exploratory*) 성격이 강한 시도였다.

한국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의 영향력에 대해 갖는 제3자 효과 지각이 발견되었고, 제3자 효과 지각의 정도가 자신과 비교하는 타인이 지역주민에서 전국민으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더 크다는 것이 이 연구의 분석결과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를 놓고 볼 때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사람들은 다른 미디어 내용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들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 제3자인 타인이 지역주민일 경우 24.0%, 전체 국민일 경우 31.6%의 응답자가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선행연구 들이 제3자 효과 지각을 한사람들이 약 50% 정도임을 보고하고 있음<sup>47)</sup>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었다. 특히 설문에서 다수의 방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측면으로 한정하여 방향성을 정해진 문제와 함께 여론조사 보도는 상대적으로 설득적인(또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47) Lasorsa, D. L., "Policymakers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 J. D. Kenamer (ed.), *Public Opinion, the Press and Public Policy* (Westport, CT: Praeger, 1992); 양승목, 앞의 글.

신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의 결과를 사안에 대해 개인이 갖는 지지와 반대의 태도를 각각 고려하여 침묵의 나선 이론의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 여부와 연계시켜 살펴본 분석은 비록 제한적으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의견이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다수 의견에 속해 있으면서, 신문 여론조사 보도가 자신보다 타인에게 다수 의견의 편으로 더욱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제3자 효과를 지각한 응답자는 전국적 차원에서, 특히 대인적 접촉이 없는 매스미디어와의 인터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견표명 의사를 보였으나 지역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다수의 견해를 갖는 자들이 전국민의 의견을 묻은 여론조사 기사를 통해 자신이 다수 쪽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국민전체가 자신의 편으로 더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고 제3자 효과를 지각한 것은 의견표명을 더 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 오히려 소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신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이 높은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이끌어 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역의 타인들이 김영삼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다수 방향) 자신보다 더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한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지역적 차원의 매스미디어 인터뷰, 공개회의 석상에서 더 높은 의견표명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여론조사 보도가 타인으로 하여금 승자편승을 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제3자 효과 지각 때문에 소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의견 표명이 결과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침묵의 나선 이론 틀 속에서의 제3자 효과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일단 소수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일종의 약자지원(underdog) 패턴에 의해 그 적합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4>는 기존의 머츠와 월낫의 연구와 유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타인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제3자 효과 지각은 결국은 여론조사 보도에



나타나고 있는 의견분위기보다 더욱 불일치한 의견분위기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데 기초하였다. 하지만 분석결과는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의 연관성을 살펴보려 한 이 연구의 일부 가정과 선행 연구의 기본 가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히 제3자 효과 지각이 보편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아가 강하며, 또한 사안에 흥미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더 현저하게 발견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제3자인 타인들이 자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더 영향을 받아 불리한 여론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판단될 때 오히려 위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일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개인 자신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각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비대인적인 타인(*impersonal others*)들로 구성되는 여론상황에서 불일치하는 의견분위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삼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추론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들은 전국민이 자신의 견해와 다른 방향으로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후에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꺼리는 패턴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차원에서 제3자 효과 지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자신의 견해와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타인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해석은 데이비슨이 1983년 논문에서 소개했듯이 선거기간중 사람들이 다른 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전물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선거요원이 소속당 후보를 위해 더 활발한 캠페인을 한다는 사례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sup>48)</sup> 물론 이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48) Davison, W. P., *op. cit.*, p. 2.

특별히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캠페인 행위와는 다른 ‘공개적’인 정치 행위를 살펴보기 때문에 데이비슨이 제시한 사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를 기초로 하여 연구의 가정을 설정했다.

일단 이 연구에서 소수와 속한 사람들로부터 예상 밖의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더욱 불일치하게 되는 여론분위기가 의견표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침묵의 나선 이론의 기본적인 주장을 신문 여론조사 보도의 영향력에 대한 승자편승 차원의 제 3자 효과 지각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더불어 이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보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인지적 혹은 감정적인 반작용이 나아가 개인의 공개적인 의견표명 여부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 아마도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편에서 멀어진다는 생각을 한 후에 발생하는 사람들의 인지나 감정적인 반응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는 데는 연구가 단면적인(*cross-sectional*) 조사로 수행되었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배경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 프로젝트 안에서 수행되어 부산과 대구라는 특정지역만을 배경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일반화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 비록 추가적으로 제 3자 효과 지각(*dummy coding*)과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지역을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하여 통제된 부분상관계수 검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특정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한 것이 이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산과 대구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달리 반응할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검증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sup>49)</sup>

49) 제 3자 효과 지각자가 적은 관계로 부산과 대구를 나누어 의미 있는 t검증을

둘째는 이 연구에서 제3자 효과 지각 분석에 포함시킨 표본이 작았다는 문제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과의 연계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운영 사안에 중립적인 견해를 보인 사람들을 제외시켰으며, 게다가 선행연구들보다 적은 제3자 효과 지각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표본 중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발견되었으나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의 논의는 후속연구에서 살펴볼 문제를 제시한다는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는 이 연구의 설계와 관련한 문제이다. 무작위로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신문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 외에 공개적인 의견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우연한(*random*) 요인들로 만들려는 연구설계를 했고, 신문 여론조사에 노출된 사람들 가운데 제3자 효과 지각을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제3자 효과 지각을 물은 복합적인 실험처치를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 그 자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어려웠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제3자 효과 지각 여부에 따른 의견분위기 지각의 변화에 대한 측정애 소홀하여 머츠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3자 효과 지각의 1차적 결과인 여론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측면은 가정으로 설정하였을 뿐 실제로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는 이 연구와 머츠의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인 제3자 효과 지각과 의견분위기 지각의 변화와의 관계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덧붙여 여론

---

하는 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3자 효과 지각(*dummy coding*)과 의견표명과의 관계를 지역을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하여 통제된 부분상관계수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유의미하게 나온 관계는 지역을 통제한 후에 김영삼 대통령 지지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의미(*marginally significant*) 있는 것으로 변하였고(전국적 차원 매스미디어 인터뷰:  $\text{partial } r = .14, p < .10$ ) 김영삼 대통령 반대자의 경우는 지역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었다(지역적 차원 매스미디어 인터뷰:  $\text{partial } r = .27, p < .05$ ; 지역적 차원 공개회의 석상:  $\text{partial } r = .26, p \leq .05$ ).

조사 보도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과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인이 이미 갖고 있는 여론분위기에 대한 지각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안에 대해 찬/반의 태도를 보인 사람들 가운데 여론분위기를 여론조사 기사 노출 전에 미리 어떻게 지각하고 있었는가를 더욱 세분화하여 모델을 제시하는 것 역시 후속 연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매스미디어와 관련한 효과 연구에서 사회적 지각을 다루는 분야는 이제 독립적인 한 분야로 묶일 정도로 많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다. 제3자 효과 가설과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서로 다른 이론적 접근을 연계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를 중심으로 모델을 제시하고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작지만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본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 발견된 사항은 한국 정치 과정에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공론장에서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개진할 수 있는 조건도 생각해 보게 한다. 즉 여론조사 보도가 제3자인 타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견해를 가진 자들이 공개적 의견표명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여론조사에서 다수로 나타난 견해가 공론장에서의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수의 압력을 행사하며 사회에서 쉽게 채택될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선거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여론조사 보도의 홍수와 함께 설득적, 부정적인 정치 메시지를 미디어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전달하리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메시지들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의 영향력(*the influence of the third-person perception*)을 침묵의 나선 이론의 종속변인인 공개적인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정도, 기타 정치 참여의 정도, 내용물에 대한 규제와 관련한 태도 등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흥미 있는 연구과제임에 틀림없다. 후속연구는 매스미디어 메시지의 영향력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이 왜 특별한 정치적 행위, 태도와 연관될 수 있는가에 대해 더욱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 김재범·이계현, “여론과 미디어 : 다원적 무지와 제3자 가설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31, 1994: pp. 63~86.
- 박정순, “커뮤니케이션과 지역감정,” 《신문학보》 25, 1990: 35~74.
- 박정순·원우현·김정탁, “다원적 무지현상과 제3자 효과에 대한 논의 : 남북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여론인식의 사례 연구,” 《신문학보》 22, 1987: pp. 5~28.
- 송경희·이수영, “TV폭력에 대한 프로듀서와 학부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0, 1998: pp. 229~256.
- 양승목, “여론조사와 제3자 효과 : 여론조사의 영향에 대한 국회의원의 지적 편향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8, 1997: pp. 6~28.
- 한국언론연구원, 《여론조사 보도》(1993).
- Brosius, H. and D. Engel, “The Cause of Third-person Effects : Unrealistic Optimism, Impersonal Impact, or Generalized Negative Attitudes towards Media Infl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996: pp. 142~162.
- Cohen, J., D. C. Mutz, V. Price, and A. Gunther, “Perceived Impact of Defamation : An Experiment on Third-person Effects,” *Public Opinion Quarterly*, 52, 1988: pp. 161~173.
- Davison, W. P.,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 1983: pp. 1~15.
- Driscoll, P. D. and M. B. Salwen, “Self-perceived Knowledge of the O. J. Simpson Trial : Third-person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Guilt,”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3), 1997: pp. 541~556.
- Glynn, C. J., A. F. Hayes, and J. Shanahan, “Willingness to Speak Out and the Spiral of Silence : A Meta-analysis”(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naheim, CA., August 1996).
- Gunther, A. C. and E. Thorson, “Perceived Persuasive Effects of Product

- Commercial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 Third-person Effects in New Domains," *Communication Research*, 19, 1992: pp. 574~596.
- Gunther, A. C. and P. Mundy, "Biased Optimism and the Third-person Effect," *Journalism Quarterly*, 70, 1993: pp. 58~67.
- Gunther, A. C., "Overrating the X-rating : The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Pornography," *Journal of Communication*, 45(1), 1995: pp. 27~38.
- Kim, Y., J. Ahn, and J. Song, "Perceived Media Influence on Self and Others on a Controversial Issue"(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 1991).
- Lasorsa, D. L., "Real and Perceived Effects of 'Amerika.'," *Journalism Quarterly*, 66, 1989: pp. 373~378.
- Lasorsa, D. L., "Policymakers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 J. D. Kenamer(ed.), *Public Opinion, the Press and Public Policy* (Westport, CT: Praeger, 1992).
- Lee, C. and S. Yang, "Third-person Perception and Support for Censorship of Sexually Explicit Visual Content : A Korean Case," *Sungkok Journalism Review*, 8, 1996: pp. 21~39.
- McLeod, D. M., W. P. Eveland, and A. I. Nathanson,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 1997: pp. 153~174.
- Mutz, D. C., "The Influence of Perception of Media Influence : Third Person Effects and Public Expression of Opi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 1989: pp. 3~23.
- Mutz, D. C., "The Political Effects of Perceptions of Mass Opinion," *Research in MicroPolitics*, 4, 1994: pp. 143~167.
- Noelle-Neumann, E., "Return to the Concept of Powerful Mass Media," in H. Eguchi and K. V. Sata(eds.), *Studies in Broadcasting*, 9 (Tokyo, Japan: NHK, 1973), pp. 76~112.

- Noelle-Neumann, E., *The Spiral of Silence : Public Opinion — Our Social Ski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Perloff, R. M., "Ego-Involvement and the Third Person Effect of Televised News Coverage," *Communication Research*, 16, 1989: pp. 236 ~ 262.
- Perloff, R. M., "Third-person Effect Research 1983~1992 : A Review and Syn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5, 1993: pp. 167 ~ 184.
- Rojas, H., D. V. Shah, and R. J. Faber, "For the Good of Others :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995: pp. 163 ~ 185.
- Rusinski, D. and C. T. Salmon, "The 'Other' as the Vulnerable Voter : A Study of the Third-person Effect in the 1988 U. S. Presidential Campaig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 1990: pp. 345 ~ 368.
- Vallone, R. P., L. Ross, and M. R. Lepper, "The Hostile Media Phenomenon : Biased Perceptions and Perceptions of Media Bias in Coverage of the Beirut Massac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985: pp. 577 ~ 588.
- Wang, H., "The Third-person Effect in Taiwan"(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5).
- White, H. A., "Considering Interacting Factors in the Third-person Effect : Argument Strength and Social Distan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3), 1997: pp. 557 ~ 564.
- Willnat, L., "Mass Media and Political Outspokenness in Hong Kong : Linking the Third-person Effect and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1996: pp. 187 ~ 212.
- Yang, S.,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 to Speak Out in the Public Sphere : A Test of the Spiral of Silence in Korea"(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7).

## Linking the 'Third-person Effect Hypothesis' and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ird-person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Poll Report  
and the Willingness to Speak Out Publicly

Yang Seungchan

In an attempt to connect two research traditions in mass communication studi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third-person perception of newspaper poll reports could mediate the process of the spiral of silence model. Unlike Mutz's(1989) assumption of a "hostile media phenomenon," the third-person questions were designed within a "bandwagon context," asking about media influence on others in the direction indicated in the poll reports. In the context of 1996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newspaper poll story on the issue of job performance of former president Kim Young Sam and the sets of third-person questions were provided to almost half of the represented sample chosen in Pusan and Taegu. It was expected that the third-person perception of mediated poll reports would influence willingness to speak out differently according to one's initial position on issue.

It was found that having the third-person perception of poll reports was related to higher level of speaking out in the public sphere among



the holders of the minority opinion, which is not supporting the hypothesis based on the assumptions in the spiral of silence model. The presence of a counter hypothetical finding among the holders of the minority opinion position suggests that the respondents' instant cognitive or affective reaction when considering media influence may be involved in the increased level of speaking out.